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8047.51 (+199.80)		1172.52 (+11.39)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664 (-0.072)		1505.00 (-12.20)



비비고·뚜레쥬르
복미 입맛 잡고
'K-푸드' 영토 확장
0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8000선을 넘어선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보다 199.80 포인트(2.55%) 오른 8047.51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사상 첫 8000피 '축포' 진격의 삼전·하이닉스

코스피, 40여일 만에 3배로
韓 증시 전체 시총 7200조 넘어
삼전 2.22%, 하이닉스 5.72% ↑
JP모건 "HBM 가격상승 지속될 것"
단기간 지수 최대 1만2000 전망도

코스피가 반도체를 날개 삼아 26일 사상 처음(증가 기준)으로 8000을 돌파했다. 지난 1년간 1000단위 지수대를 여섯 차례나 갈아치운 과속지세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몰린 돈이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 등 국내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유가와 물가를 자극했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도 한 몫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99.80 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부과 정책 발표 등의 혼란으로 지난해 4월 9일 2293.7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3배로 뛰었다.

이날 상승은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장 중 30만2000원 까지 오른 삼성전자는 2.22% 오른 29만9000원, SK하이닉스는 5.72% 폭등해 205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각각 148조 원, 1462조원으로 늘어났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은 7235조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감돌고,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며 반도체 기업 실적 전망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권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587조 6624억원, 내년 768조5790억원이다.

JP모건은 "한국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 2개 기업 보유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짚었다. 단기간 급격히 올라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JP모건의 조언이다. 공급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JP모건은 "AI 주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재고는 빠듯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은 여러 분기 단위의 가격-물량 계약으로 묶여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주식 시장으로의 막대한 자금 이동과 반도체 이익 성장을 근거로 지수가 단기간에 최대 1만2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억508만 8686개로 1년 전보다 17%(8984만675개) 늘어났다. 여기에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지난해 만해도 44%에 그쳤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ETF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다시 코스피가 상승하는 선순환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 확산으로 빚투(빚내서 투자)나 주가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등 손실 위험이 큰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코스피 8000을 이렇게 빠르게 달성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지수 등의 방향성을 예측해 나서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성 내부갈등 파고든 '中 반도체'

화웨이, 1.4나노 등 칩 기술개발 속도 HBM 고도화 CXMT와 AI생태계 연계 삼성, 첨단공정 실질수율 확보 관건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과 성과급 논란으로 내부 진통을 겪는 사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급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도체 심포지엄에서 자사 고성능 칩이 오는 2031년까지 1.4나노(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에 상용하는 트랜지스터 밀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성능 검증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첨단 칩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글로벌 최첨단 공정은 2나노 경쟁 단계로 진입 중이다.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기술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대만 TSMC 등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최대 DRAM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역시 상하이 증시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차세대 공정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허페이와 베이징에 운영 중인 3개 공장의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94%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CXMT는 조달 자금 상당 부분을 생산라인 고도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에 투입해 화웨이 등 중국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위기로 번질 정도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지만 최근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 합의하며 극적 타격을 이뤘다. 그러나 노사 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메모리 공급처 다변화 움직임에 발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반도체 생산라인의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 경쟁력 강화와 첨단 패키징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며 기술 초격차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의 2나노 공정을 앞세워 차세

대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첨단 공정의 실질 수율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2나노 관련 주문이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로드맵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스마트폰용 옛지 AI 칩과 가전용 칩 수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글로벌 고객사들은 삼성전자 내부 노사 갈등 상황 자체를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 고객사들은 공급 일정과 물량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삼성 전자 입장에서 납기 차질 없이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경우 고객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백업 플랜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조직 안정성과 공급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모든 책임 저에게"... 정용진 '탱크데이' 공개 사과

스타벅스 마케팅 입장 발표
"내부 시스템·리스크 체계 근본 점검 사회적 책임 기준도 더욱 높하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전격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며,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며 공식 고개를 숙였다. **〈관련기사 4면〉**

이어 그동안 진상 조사를 진행하느라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한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번 논란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장 직원들을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며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며, 잘못은 조직과 경영진에게 있다"고 현장 직원을 감싸 안았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내부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하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신세계그룹이 향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쇄신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김민석 총리, 집중호우 예보에 긴급 지시...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관리 만전" /사진 뉴시스
▲구윤철 "성장 좋아지면 물가·금리 상승...환율 절하효과 최소화"

▲정청래 "정용진 뒤늦은 사과, '소나기 피하기' 가식 사과 의심"
▲김상욱 "울산시장 단일화 여조 '역선택 방지' 넣어 27~28일 실시 제안"

▲국토부 철도국장 "GTX 철근 누락, 반드시 별도 보고했어야"
▲중앙선관위, 참관단 전국확대·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